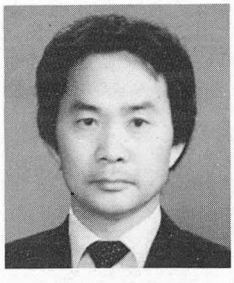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문제 해결방안



정 찬 길
(건국대학교 축산경영학과 교수)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소수양돈가에 의한 다두사육(多頭飼育) 현상이 1960년 이래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62년에 1백22만4천농가에 의하여 1백69만두가 사육되어 호당 평균 1.35두이던 것이 1989년에는 19만8천농가에 의하여 4백80만1천두가 사육되어 호당 평균 24.3두였다. 이와같이 지난 30여년 동안에 호당 평균 사육두수가 18배나 증가한 것은 양돈산업의 경영형태가 부업에서 전업내지는 제한적으로 기업적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양돈산업의 변화는 우수한 사양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은 물론 단순 노동인력마저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은 축산물 수입개방과 폐수처리 문제와 더불어 원활한 양돈경영을 매우 어렵게 하여 경영자체를 포기하는 양돈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양돈산업의 새로운 양상이다.

양돈경영에 있어서 인력난은 농업노동력의 구조적 변화에 원인이 있음은 물론, 양돈경영에서 요구되는 노동의 성격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개방경제체제의 전개와 더불어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양돈경영에 소요되는 노동력의 해결은 양돈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Ⅱ. 농가인구와 농업노동력의 감소에 의한 양돈 인력난

경제성장과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의 계속된 감소가 양돈산업에 있어서도 노동인력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같은 농가인구 및 농업 노동력의 감소는 상대적인 감소, 즉 전체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율의 감소와 절대인구의 감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율의 변화율은 농가인구

양돈장 인력문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농업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는 경제성장과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절대인구 역시 1975년에 1천3백24만 4천명에서 1985년 8백52만1천명, 1988년에 7백27만2천명으로 감소하여 14년 동안에 45%나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같이 생산성이 높은 농촌인력의 감소는 노동력의 절대감소와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여 양돈산업에도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가율과 총인구 증가율의 차이로서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농가인구의 비율은 1975년에 37.5%인 것이 1980년에 28.4%, 1985년에 20.9%, 1988년에 17.3%로 지난 14년 동안에 54%나 감소하였다. 산업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 감소는 더욱 가속화 되고, 따라서 양돈경영 인력도 양돈산업내에 높은 임금, 양질의 작업환경과 종류, 다양한 복지혜택 등과 같은 매력적인 인력유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한 동시에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양돈인력 감소의 두번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절대인구의 감소현상으로서, 이는 농업종사인구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 감소보다도 농업구조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앞에서 본 바와같이 우리나라 농업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처럼 절대인구 역시 1975년에 1천3백24만4천명에서 1985년 8백52만1천명, 1988년에 7백27만2천명으로 감소하여 14년 동안에 45%나 크게 감소하였다.

농가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경영단위인 농가호수도 1975년을 고비로 감소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감소추세는 농가인구의 그것보다 다소 완만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가인구의 빠른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영규모의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구조개선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농업노동력의 상대적·절대적 감소와 더불어 노동력의 성력도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여, 노동력이 노령화 됨으로써 절대노동력의 감소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농가인구의 연령, 계층별 시계열 변화를 보면 총농가인구에 대한 비율이 15세 이하는 1975년에 36.1%, 1980년 29.8%, 1985년 24.8%, 1988년에는 20.6%로 감소였고, 16~20세는 동기에 각각 15.0%, 15.6%, 14.9%, 14.7%로 1980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에는 감소하였고, 21~50세 동기에 각각 31.8%, 34.2%, 33.2%, 31.7%로 감소현상을 보였고, 51~65세 계층은 동기에 각각 8.4%, 9.9%, 13.2%, 16%로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음은 물론, 66세 이상 계층도 동기에 각각 8.8%, 10.5%, 13.8%, 16.9%로 계속 증가하여 농촌인력의 노령화 현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생산성이 높은 농촌인력의 감소는 노동력의 절대감소와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여 양돈산업에도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노임상승과 양돈 인력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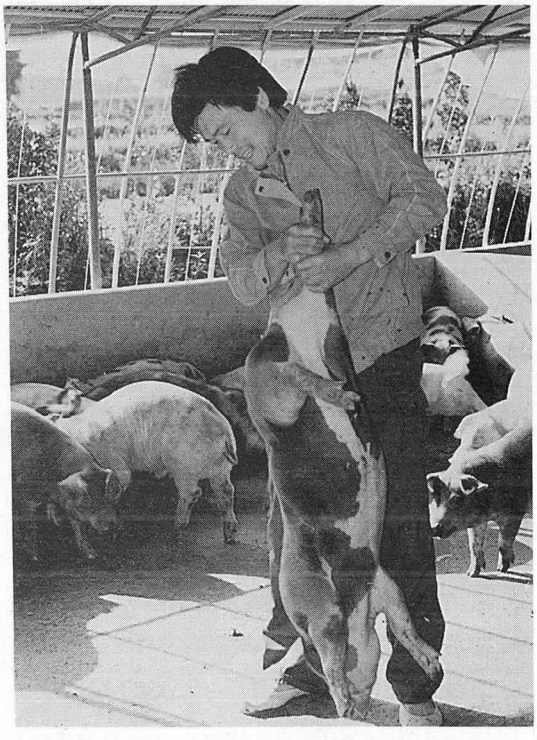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제도 1988년 하반기 이후부터 임금이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부터 1988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여 임금이 특별히 원가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나, 1988년 하반기부터 임금상승율이 노동생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높은

양돈장 인력문제 해결방안은?

생산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임금 및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보면 명목 임금이 1980~1987년에 12.2%, 1988년 19.6%, 1989년 상반기에 21.7%로 계속 오른 반면에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에 각각 9.1%, 14.4%, 11.1%로 노동생산성의 상승률이 노동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떨어지고 있다. 또한 농업노동의 농가구입 가격지수를 보더라도 1985년을 100으로 기준할 때 1970년에 5.9에서 1988년에는 127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업노동의 임금상승과 생산비에서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축산업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양돈산업의 경우에는 생산비 가운데 고용노임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자가노임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즉, 이를 축협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를 보면, 1979년의 비육돈 10kg당 경영비 6,963원 가운데 고용노임이 50원으로 0.72%였던 것이 1988년에는 9,364원중 133원으로 1.4%나 되어 고용노임의 비중이 배로 증가하였다. 자돈과 번식돈의 경우에 1980년의 두당 경영비 19,453원 가운데 331원으로 1.7%였던 것이 1988년에는 20,025원중 1,479원으로 7.4%나 되어 고용노임의 비중이 4.4배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축산내부의 노임상승 원인은 비농업부문인 써비스업이나 제조업분야로의 노동력 유출에 의한 노동력 수급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높은 임금과 급료를 제공하고도 소요되는 인력확보가 어려운데 있다. 이처럼 필요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은 직업과 작업에 대한 인식변화에 있는 것 같다. 즉, 양돈장의 일상작업이 사료급여와 돈분제거 등을 포함한 청소, 교미, 이동, 출하와 같은 작업들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또 깨끗하지 못하다는것, 오지근무의 성격과 내것이 아니라는 소유욕구에 대한 반발심리 등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양돈노동에 종사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어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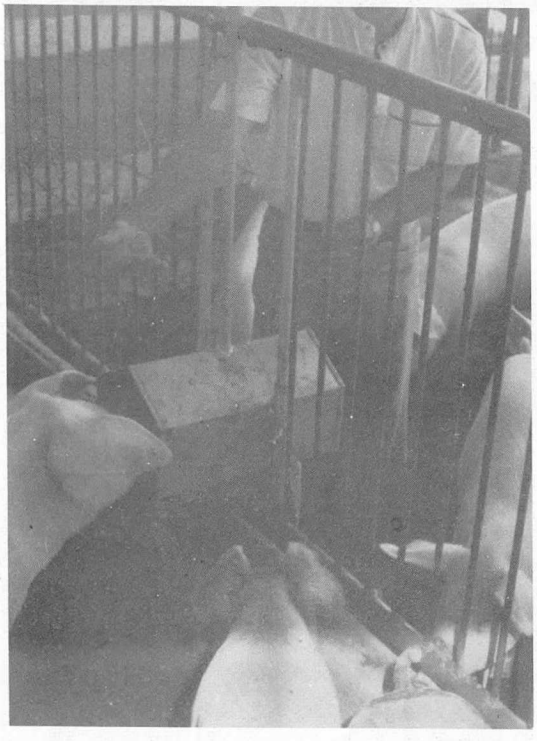
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날로 심화되어 양돈경영자체를 위협하는 양돈경영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절약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양돈부문의 기술발전이나 자본장비의 강화는 양돈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열악한 노동공급조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양돈산업 발전의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Ⅳ. 양돈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난의 해소

경제성장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노동력의 감소와 노임상승은 양돈산업의 구조적인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현재와 같은 양돈산업의 경영구조하에서는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 노임상승

양돈장 인력문제 해결방안은?



은 바로 생산비 앙등을 통한 양돈생산물 가격상승과 양돈농가 소득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축산물 수입확대와 가격정책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방정책과 가격정책의 변화가 구조조정책의 성과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양돈산업 부문에 급격한 충격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은 물론 계측하기 어려운 높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것이다.

양돈경영에 있어서 노동인력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측면을 보면 ① 사육규모 ② 기계화 ③ 시설구조의 하리적 배치 ④ 작업방법 성력화 ⑤ 고능력 사양품종 도입 ⑥ 분뇨처리방법 개선 ⑦ 작업의 숙련도 제고를 들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들 요인들 가운데 사육규모 확대와 기계화를 통한 양돈경영 인력난의 해소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돈경영의 사육규모의 확대는 1두당 사육노동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또한 이 노동시간의 절감은 사육규모의 확대를 가능케 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사육규모의 확대에 따른 노동시간의 절감효과를 1972년도 일본의 비육돈 생산비 조사자료를 통해서 보면, 비육돈 1두당 사육노동시간이 1~4두 규모에서는 27.4시간, 5~19두 규모 13.4시간, 20~49두 규모 9.8시간, 50~99두 규모 7.3시간, 100두 이상 규모 5.7시간으로 100두 이상 규모는 1~4두 규모의 20.6%에 불과하여 그 노동시간이 5분의 1로 저하하고 있다. 따라서 100두 이상 규모에서는 1일 1두당 2.4분의 사육노동시간으로 1일 8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1인당 200두 이상 사육이 가능해 진다는 결론이다.

소두수 경영에서는 노동시간의 필요량은 사양규모와의 관련이 크고, 다두수 경영에서는 기계화 시설 등의 투자구조와 그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사육노동시간의 절감에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사육규모의 확대에 따라 대량 생산의 법칙이 작용하여 1두당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육규모는 일정하게 하더라도 투자규모 즉, 기계와 시설에 따라 노동시간을 절감하는 것이다. 전자는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동의 대체적 경영수단으로서 자본투하를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업 또는 기업단계에서는 노동시간의 절감은 규모 확대라기 보다는 자본투하에 의해서 경영전체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성력화에 전념하는 경영방침이 채택되어야 한다. 그래서 비육돈 1인당 사육가능두수는 양돈농가 단계의 자본장비하에서는 300~500두이고, 기업단계하에서는 1,000두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자돈생산 경영에서는 양돈농가 단계에서는 종돈을 기준으로 30~50두, 기업경영에서는 100두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으로 권장된다.